No.49

Japan Weekly Digest

2010. 8. 23 ~ 8. 29

☐ 금주의 이슈
- ◦ 엔화 15년 만에 최고치, 1달러 83엔대 기록
- ◦ 한중일 3국 관광장관회의, 역내 관광객 2600만명 목표
- ◦ 쿠로다전기,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인도시장 진출
- ◦ 경기도, 일본기업 3사와 1억3천만 달러 투자 MOU

☐ 일본 정재계 소식
- ◦ 간 총리, 엔고·주가하락 문제로 경제3단체장과 의견교환
- ◦ 오자와 前간사장 민주당 대표선거 출마 표명
- ◦ 국토교통성, 주택 에코포인트제도 1년 연장

☐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- ◦ 태양광발전 기술연수 제도 창설
- ◦ 모노즈쿠리 수출기업 1000억엔 지원
- ◦ 도요타·미사와, 에너지 자급자족 주택 공동개발

☐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- ◦ 엔고 폭풍, 도요타 등 일본 탈출 (산케이)

KJE 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je.or.kr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엔화 15년 만에 최고치, 1달러 83엔대 기록

- 뉴욕 외환시장에서 24일, **1달러=83엔58전**을 기록하여 **1995년 6월 이래 15년 만에** 최고치를 갱신하였음
  · 유럽의 재정 리스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엔고가 진행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짐
  · 그러나 향후 일본은행에 의한 추가 금융 완화 관측이나 재무성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어 급격한 엔고진행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
  · 노다 재무장관도 25일, 「필요에 따라 적절히 대응 하겠다」고 **환율개입을 처음으로 언급**

○ 한중일 3국 관광장관회의, 역내 관광객 2600만명 목표

- 한국, 중국, 일본의 3개국의 제5회 환경장관회의가 22일, 중국에서 개최 **2015년까지 역내 상호방문자를 2600만명으로 확대**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
  · 마에하라 국토교통장관은 올해 7월, 완화된 중국인에 대한 개인 관광 비자를 「한층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」고 언급, 비자지급 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
  · 한중일의 역내 상호방문은 경기후퇴로 인해 09년에는 1350만명까지 감소되었으나 올해는 목표인 170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  · 공동성명에는 프로모션 협력, 애니메이션, 스포츠, 식(食)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표명

○ 쿠로다전기,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인도시장 진출

- 액정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쿠로다는 24일,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하여 수지성형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
  · 냉장고, 에어컨,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부품생산을 위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의 전기,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하는 것이 목적
    * 2011년7월 가동 예정. 투자액은 약20억 엔 (쿠로다49%, 한국ECOREA47%)

○ 경기도, 일본기업 3사와 1억3천만 달러 투자 MOU 체결

- 경기도는 21일, 캐논, NEG, 우에무라공업 등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
  · 캐논은 제조시설과 R&D센터 설립을 위해 1억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(안산시).
  · LCD용 유리기판 제조사인 NEG는 파주 산업단지에 2,400만달러를 투자하고, PCB용 도금약품 제조사인 우에무라공업은 화성에 650만달러를 투자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간 총리, 엔고·주가하락 문제와 관련 경제3단체장과 의견교환

- 간 총리는 25일, 일본경단련 요네쿠라회장 등 경제3단체 회장들과 회담하고 엔고나 주가하락 등에 대해 의견 교환했음

· 경제계는 급격한 엔고나 주가하락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신성장 전략을 조기에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음

· 한편, 총리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설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떠받쳐달라고 강조

*요네쿠라 경단련회장: 환율안정을 가장 중요
*사쿠라이 경제동후회회장: 강한 경제·재정·사회보장 실현이 중요
*오카무라 상공회의소회장: 빠른 대책 실행이 중요

○ 오자와 前간사장 민주당 대표선거 출마 표명

- 오자와 이치로 前 민주당 간사장은 26일, 9월 14일 실시 예정인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표명했음

· 오자와 前간사장은 26일 오전, 하토야마 前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기자단에 「대표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 했다」고 언급(하토야마 前총리도 오자와 지지를 밝혔음, 오자와 그룹: 약150명, 하토야마 그룹: 약50명)

· **하토야마 前총리의 오자와 지지로 대표선거 행방이 불투명**해져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임

· 뚜렷한 대결 구도의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기든 **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**

○ 국토교통성 주택 에코포인트제도 1년 연장

- 국토교통성은 주택의 신축·개보수에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를 **올해 12월말부터 최장 1년 연장할 방침**이라고 발표

· 최근 경기는 회복경향에 있긴 하나 아직 신중한 견해가 많고 향후에도 **주택시장 활성화와 소비 환기가 필요하다고** 판단

· 국토교통성은 내년도 예산요구에 150~300억 엔 정도를 반영할 방침이고 경산성, 환경성과도 협의해 나갈 예정

* 포인트는 신축의 경우 30만 포인트, 개보수는 2000~18000포인트(1포인트 당 1엔상당의 상품과 교환)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○ 태양광발전 기술연수제도 창설

- 경제산업성은 23일, 주택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기술자를 「PV(태양광발전)시공사(가칭)」 양성하는 제도를 2011년에 창설한다고 발표

· 시스템 메이커나 관련사업자로 구성되는 태양광발전협회(JPEA)와 연계해서 업계 공통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과정을 수료한 인재를 시공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
· 지구온난화대책의 중심인 태양광발전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 신뢰확보와 직결되는 "시공품질"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
· 태양광발전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시공기술의 품질확보와 도입비용 절감을 위한 「표준화」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9월중 검토위원회를 설치 예정

○ 모노즈쿠리 수출기업 1000억엔 지원

- 닛케이신문은 21일, 경제산업성이 추가경제대책의 하나로 **모노즈쿠리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융자 확대** 등 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

· 최근 엔고는 중소수출기업이 대기업보다 타격이 크다고 보고 인재나 기술의 기반을 지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
  * 지원규모는 1000억 정도 예상
· 구체적으로는 **제품의 시작품 개발로부터 판로개척까지 비용의 일부를 지급**
· 시험기관에 제품 테스트를 의뢰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나 금형 등 연구개발비용의 지원도 검토할 방침

○ 도요타·미사와, 에너지 자급자족 주택 공동개발

- 도요타자동차와 미사와홈은 23일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차세대형 주택의 공동개발 계획을 발표

· 태양열을 이용하여 소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택이나 가정 내 에너지를 자동으로 제어 하는 시스템을 2011년까지 실용화하는 것이 목표
  * 도요타는 미사와에 대한 **출자를 확대**하고 차세대형 주택에 경영자원을 집중
· 미사와는 이산화탄소(CO2)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제로로 하는 「차세대 제로 에너지 주택」의 개발을 담당하고 도요타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
· 도요타그룹은 미사와홈의 주식 27.8%를 보유하고 향후 주택산업을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임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엔고 폭풍, 도요타 등 日기업 일본 탈출 (산케이)

2010.8.25

○ 급격한 엔고기조에 유효한 대응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정부·일본은행에 실망한 기업들이, 제조거점을 해외로 시프트 하거나 글로벌 M&A를 통해 수익원의 국제화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음

○ **한편, 엔고로 기업경영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증가**하고 있어 일본기업의 이익 감소 리스크는 증대되고 있음

□ 제조거점의 해외 시프트 가속화

○ 닛산의 시가 최고집행책임자(COO)는 지금의 엔고수준이 계속되면 **국내제조거점의 투자를 재검토**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시사

* 「(국내에서) 필사적인 비용 삭감 노력을 하고 있으나 80엔대라는 환율은 정말 어려운 수준이다」

- 닛산은 올해 1~6월 **해외에서 138만대를 생산하여 해외생산 최고를 기록**. 간판 소형차 「March」는 이미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태국으로 이전

○ 도요타의 이지치 전무도 「기본적으로는 팔리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기본」이라면서, 해외생산을 확충해 나간다고 강조

- 도요타는 중장기적으로 1달러=85~95엔을 기록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했으나, 지금 엔고는 예상보다 심각하며, 해외 시프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

* 파나소닉은 국내 생산중인 플라즈마패널을 중국으로 이전(샤프도 간판상품인 액정 패널을 중국에서 생산)

□ 엔고를 이용한 M&A 실행 확대

○ 엔 가치의 상승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다국적기업으로서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음

- 적극적 M&A를 통해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전산은 18일 美에머슨·일렉트릭 모터 사업부문을 매수

* 에머슨 모터사업의 연간 매출은 약700억 엔으로 "우량기업". M&A를 통해 세계로 사업을 분산시켜 **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익 구조를 구축**

○ 엔고로 일본 국내기업의 이익 감소 리스크는 확대

- 대기업의 해외이전 가속으로 **하청 중소기업은 경영권을 포기**하는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

-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는 「일본이 강점을 가진 화학, 연료전지 분야에 보조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」고 언급하고, 국내기업의 약체화를 막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(1) 『중국GDP는 일본을 추월했는가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8월23일
*출처: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kuma/pdf/k_1008e.pdf

(2) 『태양광발전 업계 전망과 일본 기업의 과제 』 노무라 종합연구소, 8월24일
*출처: http://www.nri.co.jp/opinion/k_insight/2010/pdf/ki20100802.pdf

(3) 『태양전지의 저비용화 실현으로 아시아 기업에 대항』 노무라 종합연구소, 8월24일
*출처:http://www.nri.co.jp/opinion/k_insight/2010/pdf/ki20100803.pdf

(4) 『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(FTAAP)의 매크로적, 산업별 중요성 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8월25일
*출처:http://www.esri.go.jp/jp/archive/e_dis/e_dis250/e_dis244.pdf

(5) 『ASEAN+3, 식료안전보장의 협력전략 』 농림수산정책연구소, 8월25일
*출처http://www.maff.go.jp/primaff/koho/seika/review/pdf/primaffreview2010-37-7.pdf

(6) 『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일본기업의 글로벌전략 』 JETRO, 8월25일
*출처:http://www.jetro.go.jp/world/gtir/2010/pdf/shiryo2010.pdf

(7) 『산업공동화에 대한 인식조사~중소기업500사』 오사카시신용금고, 8월26일
*출처:http://www.osaka-shishin.co.jp/houjin/keiei/pdf/2010/2010-08-18.pdf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8월 23일(월)	○ 오카다 외무장관 태국총리와 회담 ○ 한중일 지적재산권 협력대화 개최(서울) ○ 7월 전국슈퍼매출 발표(체인스토어협회) ○ **경기도, 캐논 등 일본기업 3사와 투자 MOU 체결(도쿄)**
8월 24일(화)	○ 나오시마 경산상 베트남 방문(26일까지)
8월 25일(수)	○ 노동정책심의회 개최(후생성) ○ 7월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
8월 26일(목)	○ 日·ASEAN경제장관회의 개최(베트남)
8월 27일(금)	○ 7월 소비자물가 발표(총무성) ○ 7월 실업률 발표(총무성)

***28일 일·중 하이레벨 경제대화 개최(북경)**